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호 [루계 제23344호] 주체100(2011)년 1월 27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닌 전자악단의 예술인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관람자들은 정초부터 불철주야의 초강도강행군으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어버이장군님께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

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인 최희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평양시 당 책임비서 문경덕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들인 김원홍동지, 리병철동지, 국방위원회 국장들인 현철해동지, 리명수동지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전자악단은 이날 공연무대에 전자기악중주 《축원》,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녀성3중창 《매혹과 흥모》, 남성5중창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전자기악중주 《병사들은 노래하네 우리의 최고사령관》, 《즐거움 무도곡》, 녀성독창 《일편단심 붉은 마음 간직합니다》, 합창 《천만이

총곡란 되리라》 등 다채로운 종목들을 펼치였다.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선군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당과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수명부, 장군부, 최고사령관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일편단심 장군님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 주었다.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역센 기상을 그대로 반영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의 심장

의 웨침으로 하여 장내는 총성의 대하 마냥 설레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군인정신이 내려지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자악단에 예술인들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들을 가지고 통속적이면서도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해 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이 조직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혁명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함으로써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전자악단의 창작가, 예술인

들의 가슴마다에 세차게 고동치는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자랑스런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군사령부협주단 전자악단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을 과감히 벌려 군인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불려 일으킴으로써 선군시대의 나팔수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예술창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협주단의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은 전자악단을 몸소 무어주시고 걸음 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눈시울을 적시면서 예술창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려 군인들과 인민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라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선군천리마에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1 계렬건축공사 완공, 부분별시운전 시작

흥남 가스 화대상 공사장에서

올해공동사설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생활대고조의 밑불이 될 불같은 열망을 안고 흥남가스화대상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곳 건설자들은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가스화1계렬공정의 건축공사를 끝낸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설비들과 장치물제작 및 조립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는 동시에 부분별시운전에 들어가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리하여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는 물전해지구에 이어 수백개의 구조물들과 탑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가스화 지구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것은 김철의 신념, 김철의 본때, 김철의 실천력으로 인민생활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앞장서 열어나가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굴의 기개와 정신력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우리 조국, 김일성조선에 강성대국의 문명을 달기 위한 총진군의 나팔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나가고있습니다.>

함경남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대고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데서 도가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흥남가스화대상공사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의 힘있게 벌려 편만된 단위의 모든 전투장들에 혁신과 비약의 폭풍이 불아치게 하겠다.

도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에 의하여 시, 군들에서 달려온 기동예술팀원들이 울리는 경제선동의 북소리가 통성기계련합기업소의 모든 전투장들에 힘있게 메아리치고 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보내는 지원물자들이 가스화대상설비생산에 펼쳐나선 기술자들과 전투원

들의 사기를 한층 돋구어주고 있다.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이 <다음고대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중앙의 동의를 높이 울렸다면 통성의 로동계급은 <편만부름, 편만단위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가스화대상 설비생산에 위한 전투에서 현대적혁신의 불길울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당의 부름에 산악같이 일떠선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통성기계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생산현장에 들어가 기술자, 종업원들과 과학을 함께 하면서 가스화대상설비생산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투쟁전투를 격조 높여 밀고 나가고 있다. 현선의 불길은 가스화대상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도 세차게 타고오고 있다.

흥남비료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은 온 나라가 흥남을 지켜보고있다고 하면서 가스화대상공사가 벌어지는 전투장에 나가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이제 고구려의 이기 기술자들과 전투원들은 막아서는 예로와 난관을 뚫고 방대하고 아름다운 가스발생로제형의 장치물조립과 축로전투를 성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올해공동사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를 피우는 심장으로 받아안은 단천지구 광산,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이 총동원된 불길울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의 재원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 가야 하며 이미 마련되어있는 경제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중대한 자료에 의하면 단천지구광업총국 아래 여러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해 첫 전투부터 생산성과를 확대하며 생산능력 투쟁을 드세게 벌리고 있다.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이 항구의 날이 하루하루 앞당겨지고 있다. 본사기자 송창윤

이 세차게 타고오고있는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도 몇몇동안에 여러차례 단천지구의 광산,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 광산,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치하시고 기술개발을 힘있게 다그치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단천지구의 광산,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동원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도당위원회와 단천지구광업총국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이곳 광산, 공장, 기업소당 조직들에서는 올해공동사설과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종업원들의 편지내용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깊이있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단천지구광업총국과 여러 광산, 공장, 기업소들의 일군들은 생산에서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나가면서 중앙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 있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새해 첫 전투부터 매일 계획을 1.2배 이상 넘쳐 수행하고 있다. 금광광산과 검덕광, 로은광산, 남평광산, 청년광산을 비롯한 여러 광산, 광장에서 중앙돌격투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청년영웅광산과 봉양광산, 백마위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부단치는 난관을 이악하게 뚫고나가면서 생산적양양의 불길울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다. 대청년영웅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이바지할 뜨거운 한마음으로 광석생산과 크렁카생산을 분별있게 다그치고 있다. 통양광산과 백마위광산의 일군들과 광부들은 전담이 좋은 재물장들을 넘겨 마려내고 질 좋은 광석생산에서 편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단천마그네사광산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마그네사크렁카광업의 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를 보다 공고히 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여러가지 지표의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진내화물광공장과 단천제련소, 단천광산기계공장에서 도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면서 매일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특파기자 박동석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생산을 다그치고 있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장정일 찍음

올해 농사차비에 모든 힘을 집중

서해벌방농촌들에서

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준비를 잘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서해벌방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농사차비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황해남도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농촌들에서 이미 천수백만의 거름을 생산해놓고 매일 수십만의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고 있다. 이 성과는 농사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올려 전진하여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열의를 펼쳐려는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완강한 실천력

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요,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농사차비를 착실하고 있다. 룡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평안북도 거름실어내기 운동에 힘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안의 농촌들에서 포전에 정보당 수십백의 거름을 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선천군과 운진군, 박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 실어낸 높은 목표선에 편일 실적을 올리고 있다. 문덕, 숙천, 평원군들에서 새해에 들어와 첫 열흘동안에 수만톤의 니랑을 캐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동시에 내밀고 있다. 다른 군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거름생산이 곧 쌀생산이라고 하면서 거름생산을 내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순홍

이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요,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농사차비를 착실하고 있다. 룡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평안북도 거름실어내기 운동에 힘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안의 농촌들에서 포전에 정보당 수십백의 거름을 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선천군과 운진군, 박천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 실어낸 높은 목표선에 편일 실적을 올리고 있다. 문덕, 숙천, 평원군들에서 새해에 들어와 첫 열흘동안에 수만톤의 니랑을 캐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동시에 내밀고 있다. 다른 군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거름생산이 곧 쌀생산이라고 하면서 거름생산을 내밀고 있다. 본사기자 김순홍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문화정서생활기지 - 국립연극극장

새해공모사업에 제시된 전투적업관편에 펼쳐진 인민들에게 신심과 광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며 수도의 한복판에 높이 솟아 버티는 국립연극극장, 멀리서도 웅장하고 멋있게 그 모습이 가슴부풀도록 안겨오는 극장의 중앙홀로 들어서면 첫 순간부터 사람들은 황홀한 신비경에 감탄을 터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며 인민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본분으로 하고있다.」

시원하면서 세련되고 우아하게 꾸러진 중앙홀, 5대혁명영웅들을 형상한 훌륭한 벽면장식들,

하지만 그 모든것에 앞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것이 있다.

몹스 국립연극극장의 개건공사를 맡고있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고 있으며 완공의 날에는 제일먼저 이곳을 찾으면서 인민들에게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를 안겨주게 된것이 그러도 기쁘시어 환한

그 사랑 전하며 영원히 빛나리

미소를 지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그 사랑, 《아버지장군님께서는 국립연극극장을 세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할것을 몸소 발기하시고 개건공사가 빠른 기간에 높은 수준에서 완성되도록 필요인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습니다.》

우리와 만년 국립연극극단 일군의 감동에 젖은 이야기였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를 일떠세우신 국립연극극장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극장을 바라보시며 현대적으로 잘 지어졌다고, 이것은 자신께서 국립연극극단에 주는 선물이라고 드신크 말씀하시었다.

그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벅차올랐다. 아버지 수령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여있는 국립연극극단이 선군시대에도 변함없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 판공되는 예술단체로 이름을 떨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위대한 아버지의 그 손길아래 경희극 《산울림》이 선군시대의 명작으로 새롭게 태어났을 때에는 그 모든 성과를 창작자, 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은정을 아저 한두마디 말로 다 전할수 없으리.

정령 눈부시게, 황홀하게 변변된 극장의 새 모습이지만 변하지도 식지도 않는 뜨거운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술인들과 인민을 위하여 바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무한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이다.

걸음걸음이 끝없는 환희와 찬란으로 이어지게 하는 극장의 관람홀에 어린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또 얼마나 뜨거웠을지.

있을수 없는 현저지도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첫 관람자가 되신편의 말을 가슴에 보시려 몹스 앞아보기까지 하신 관람홀의 의자,

그 의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전분을 보고 만든 사연깊은 의자였다.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은정에는 정령 끝이 없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기고 단 몇달사이 국립연극극장을 오 늘과 같은 훌륭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로 전변시킨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의 감격도 번져보게 된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여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훌륭히 실현된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적창조를 최단기간에 일신시킨 놀라운 그 위훈.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새로 건설된 국립연극극장은 내부구조도 좋고 시공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을뿐 아니라 문화예술정서로서의 내용과 형식도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장하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깨끗한 땅을 힘써 일떠세운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은정깊은 감사를 주신것이다.

자랑할만 한 현대적인 극장

을 불과 4개월 남짓한 사이에 일떠세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이 눈부신 성과는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우리 군인들의 무한대한 정신력에 대한 뚜렷한 파시로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기적과 위훈의 비결은 다름아닌 우리 장군님에 대한 불같은 그리움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사랑과 은정이 넘치는 국립연극극장에서는 지금 경희극 《산울림》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복받은 이 땅의 인민들을 향하여 행복의 문을 활짝 연 사랑의 집에서 끝없이 울려나오는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우리 장군님께서 주신것이다. 이인위권의 송고한 리념을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에서만 울릴수 있는 아름다운 행복의 메아리이다.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그 메아리와 더불어 사랑의 문화정서-국립연극극장은 영원히 솟아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윤지혜

지난 시기 《성황당》식 혁명연극창조와 공연열기로 들끓던 국립연극극장이 개건된 후 더욱 흥성이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건전하고 풍부한 문화생활은 가장 값있고 보람찬 문화생활이다.》

지난해 10월 개건된 국립연극극장을 돌아보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의 향유를 위한 극장을 더 잘 꾸리고 봉사활동을 부단히 개선강화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극장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극장의 개건정형과 함께 불장식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며 극장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송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국립연극극장은 개건된 이후부터 더욱더 흥성이고있다.

경희극 《산울림》의 공연으로 첫막을 올린 때로부터 지난 두달 남짓한 기간에 극장에서는 수십차례의 경희극과 학술소품공연들이 진행되었으며 수많은 수도시민들

과 청소년학생들이 훌륭히 개건된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하고있다.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복부하는 인민의 향유물로 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긴 극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극장관리사업을 짜고들고 설비, 기체관리사업을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속에 마련된 최신설비들과 훌륭한 비품들로 가득찬 무대와 관람석, 편의봉사 및 위생시설들이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진 극장에서의 인민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다.

국립연극극단의 창작자, 예술인들도 예술창조활동에 자기마한 불원도 없도록 꾸러진 멋쟁이극장에서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며 새로운 작품창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그 어둠을 둘러보아도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차 있는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문화정서생활기지-국립연극극장은 인민들에게 언제나 끝없는 광만과 희열을 안겨줄것이다.

본사기자

예술인의 크나큰 긍지를 안고

아버지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화려한 극장무대에서 공연활동을 힘있게 벌일 때면 저는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심장을 적시곤 한다.

우리 국립연극극단 창작자, 예술인들에게 경희극 《산울림》을 제작조할때 대한 과업을 맡겨주시고 형상방도까지 가르쳐주시며 작품이 선군시대의 명작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해주신분은 우리 장군님이시다.

그런데도 그 모든 성과를 우리 국립연극극단 창작자, 예술인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고 멋쟁이살림집과 함께 이렇듯 훌륭한 극장까지 마련해주시며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니 가슴속에 넘치는 감사의 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없겠는가.

나날이 커만 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극장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근로자들 본사기자 조은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꾸러진 극장에서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는 근로자들 본사기자 조은

본사기자 윤지혜

《아버지장군님,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장군님의 사랑속에 새로 일떠세 국립연극극장에서 경희극 《산울림》을 관람하고나니 생각도 많았습니다.

일년열두달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고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신문지면을 통하여 비움 때마다 그리움의 눈물을 지으며 더 많은 일을 하리라 마음속에서도 굳게 다지며 일상을 꾸어 놓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로고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시고 인민들이 바쳐가는 자그마한 노력과 헌신도 크게 여기시며 세상이

부럽도록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라고 이렇듯 훌륭한 문화정서생활을 또다시 마련해주시니 가슴속에 가득차오르는 감사의 정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강행군 길에, 인민은 언제나 행복의 만리길에!

우린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로로운 모습을 삼가 우려르며 이렇게 심장의 목소리를 터칩니다.

《아버지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만경대구역 갈림길 2동 김준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지금 조선반도에는 우리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전쟁접경으로 치달던 정세를 완화시키고 비핵화과정을 재개할수 있는 일련의 가능성들이 조성되고있다. 주변나라들속에서도 이를 장려하고 추동하는 노력들이 경주되고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것은 오늘 국제사회의 공통된 지향으로, 시대의 절박한 요구로 되고있다.

그러나 긴장격화와 대결을 통하여 자기의 리기적목적만을 추구하려는 세력의 대화방해행동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반세기이상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어 적대관계들이 2중3중으로 얽혀있는 조선반도에서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모처럼 마련된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일방적인 전제조건들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들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놓으려는 주장들을 경계하여야 한다. 여러 갈래의 대화들이 그도 합당한 제를 취급하도록 하며 공통점은 찾고 차이점은 뒤로 미루는 원칙에서 얽힌 매듭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는것이 진정한 대화제이다.

조선반도핵문제는 철두철미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전쟁위협과 적대시정적으로 말미암아 신생된 문제로서 그 근원을 제거할수 있는 대화방식이 필수적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은 변함이 없다. 평등의 정신과 동시행동

인민적보건의책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리행해나갈 우리의 의지도 변함이 없다.

조선반도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적대관계가 지속되는 한 어느 일방의 행동은 한반도에 발로 비쳐지거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신뢰를 조성해나감으로써 서로 도발로 간주되는 행동들이 없도록 하자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며 우리는 그 실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용의가 있다.

정세의 변화나 아니면 긴장격화의 악순환이나 하는 리로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현상들은 유관국들로 하여금 그 어느때보다도 대국적안목과 시대적정신감을 지니고 대화의 기회를 놓치려는 용단을 내릴것을 요구하고있다.

주제100(2011)년 1월 26일 평양

기적을 안아온 사랑과 정성의 180여일

사경에 처하였던 한 병사를 다시 초소에 세운 김만유병원 의료일군들

지난 1월초 김만유병원에서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는 광경이 펼쳐졌다. 사경에 처하였던 한 병사가 180여일만에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였던것이다.

살려낼수 없으리라는 병사를 기적적으로 소생시켜 다시 초소에 세운 사랑과 정성에 대한 이야기는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 일군들속에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소행과 감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고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병사 최광명동무가 김만유병원으로 실려들어온것은 지난해 6월말이었다.

환자의 상태는 지명적이였다. 뜻밖의 사고로 식도와 기도도 다 끊어져 사람의 건강유지에서 가장 기초적인 영양섭취는 물론 호흡조차 제대로 못하였다. 머구자 해방중까지 겹쳐 환자의 생명지표는 마지막선에 이르렀고있었다.

병원의 책임일군들이 참가한 가운데 협의회가 열리고 그에 따라 소생전투가 벌어졌다.

환자가 최원발전소실상태의 군인건설자라는 사실은 의료일군모두의 가슴에 비상한 작오를 데해주었다.

환자의 수술을 이어주고 음식물섭취를 위한 구급대책이 취해졌으며 수술, 수액보충이 따라졌다.

그러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몸에 가득차 있는 염증성분비물 제거였다. 단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환자의 생명은 담보할수가 없었다.

하여 밤을 꼬박 밝히며 긴장한 치료가 벌어졌다. 그것은 말그대로 전투였다. 밤은 깊어가고 주위의 불빛들은 하나둘 꺼져도 의료일군들이 지켜선 창가의 불빛은 순간도 꺼질줄 몰랐다.

어느날 생사기초에 있던 최광명동무가 의식을 차렸다. 눈을 떠보니 의료일군들이 그의 곁에 앉아 치료전투를 쉬없이 벌리고있었다.

머칠밤을 지새워 눈에 피발이 선 모습들, 밀려오는 졸음을 쫓느라고 무진애를 쓰는 담당의사 차이명, 담담간호원 조혜경동무

무를 바라보는 최광명동무의 눈에서는 저도모르게 눈물이 솟구쳤다.

그렇게 40일간의 긴장한 나날이 흘렀고 다시 두달, 석달이 지나갔다.

그나리코로 밤낮까지 없었던 사람들이 어찌 환자의 담당의료일군들만이라. 과안의 최종중환자들에게 내내 치료사업으로 드바쁜 속에서도 함께 밤을 새우며 담당의료일군들에게 힘을 준 후방의과과장 박국혁, 부과장 최희성, 부문당직사 후순화, 간호장 박명우동무들.

병사의 목에 생긴 수술자리를 천자신의 몸에 남은 허물처럼 여기며 성형수술까지 하여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온 김만유병원의 의료일군들의 정성의 이야기가 우리는 다 전하지 못한다.

본사기자 방경찬



새해에 즈음하여 외무성에서 로씨야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 마련

주제 100 (2011)년 새해에 즈음하여 외무성에서는 25일 주조 로씨야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프라타르 싱 주조 인디아공화국 특명전대사가 26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박의춘외무상, 조선인디아친선협회 위원장인 현상주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 박국광, 박길연, 리명산, 문성모 등 관계부문 일군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국제기구대표들이 초대되었다.

모임에는 왈레리 루히닌 로씨야대사관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박의춘외무상, 외무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설들이 있는 다음 참가자들은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킬것을 위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인디아공화국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찬양하며, 존경하는 프라타라 데비싱 과말대통령각하와 만모 신수상각하의 건강을 축원하며, 조선과 인디아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주민들의 기쁨이 커갈수록

개성 산원에서

훌륭히 꾸러진 산원에서 귀여운 아기를 받아안고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가는 녀성들과 더불어 시인의 주빈세대들에서 기쁨이 커갈수록 개성산원 의료일군들은 인민의 복부자 된 데없는 긍지와 보람을 느끼곤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국심은 주제의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마음이며 참된 삶과 행복의 요람인 사회주의 내 조국을 세움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빛내이려는 불타는 마음입니다.》

맞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경북도인민병원을 찾아주시었다는 감격적인 소식은 원장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군들에게 새로운 결실과 각오를 굳게 해주었다. 그만큼 목표도 높이 세웠고 실천투쟁도 혁명적으로 벌어졌다.

대중의 정신력이 분출되는 가운데 보건의학적요구에 맞게 치료환경이 개선되었다. 뒤이어 축산기적활성화와 함

계 양어장이 확장되고 병원의 모든 사업이 정규화, 규범화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어나갔다.

시의 일군들의 방조와 고되는 양양면 의료집단의 열의를 더한층 북돋아주었다.

수백개의 창문들이 은백색 창문들로 바뀌어졌으며 수술장, 해산실, 입원실들의 면모가 완전히 달라졌다. 입원실들과 치료실들의 난방도 실현되었다.

이들은 치료예방사업과 자질향상에도 힘을 넣어 산과부문에 힘들다고 하는 과중성혈판대응고중추관환자를 살려내는 기적같은 성과도 이룩하였다.

후방부문의 종업원들도 산모들에게 답답과 미역, 꿀을 성장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자체의 힘으로 치료환경을 훌륭히 개선하고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해놓은 이곳 의료일군들은 올해에 정성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 치료예방사업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킬것 다 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확고한 학술적권위를 가지고

청진금속건설연합기업소병원 일군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이 권한만 가지고 의사들의 환자치료사업에 대한 지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병원관리운영을 책임진 일군들이 의사들의 환자치료사업에 대한 지도를 학술적권위를 가지고 높은 과학기술수준에서 진행하는것은 당장적책으로 중요하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병원의 일군들은 정초부터 환자치료사업에 대한 기술적지도로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해나가기 위해 애쓰고있다.

림상과학리론이나 실천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의료일군들의 지식이 되고있는 이 못 일군들의 모습은 이조차 못에서 찾아볼수 있다. 특히 의료일군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질적특성은 의료일군들을 분발시키고있다.

기술부원장 고승국동무의 정성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켜올 치료예방사업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킬것 다 높은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학을 심화시켜 이 부분 질병이 아님을 확신했다.

검사결과에 협의회참가자들의 의견이 집중되었다. 이날 협의회는 결국 스쳐버린 검사결과를 놓고 과학적인 진단이 내려졌다.

풍부한 립상경험과 높은 립상파라리론수준, 실천능력까지 안받침된 병원일군의 확고한 학술적권위를 기초한 기술적지도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치료사업에서의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곳 일군들이 당정책의 요구대로 직무로구나 아니라 학술적권위로 기술적지도를 준 실례들을 꼽자면 많다.

병원일군들의 학술적권위는 이런 과정속에 세워지며 그에 기초하여 기술적지도를 할 때 치료예방사업의 성과가 확정적이라고 할수 있다.

하기에 남경철, 김인숙, 리영희, 리연옥, 한혜영동무를 비롯한 병원의 의사, 간호원 모두가 실력의 높이지지 않는다는 의사를 자각하고 배우고 또 배우며 건설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

본사기자 오현

